보도시점 2024. 12. 18.(수) 17:00 배포 2024. 12. 18.(수) 16:20

제23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 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 등 8건 논의
-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상향 제안(경작면적 3,000㎡, 연간 판매금액 360만원)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8일(금) 제23차 본회의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하였다.

농어업위는 오늘 회의에 앞서 올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 협동조합(단체), 연구원 및 언론사 기자 등 13명에게 표창장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본회의 안건 논의에 앞서 김창길 농어촌분과위원장은 오늘 심의 안건인「농산어촌 디자인 지자체 도입 방안」을 특별주제로 발표하였는데 "농산어촌 디자인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마련 시범사업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과 같은 기존 사업과의 연계, 농어촌 자원의 DB 구축, 지자체 법규(조례·규칙) 제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하였다.

장태평 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위원 2명과 위촉위원 19명 등 모두 2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주제발표 안건을 포함하여 아래 3건을 심의·의결하였다.

①「농업경영체 기준 재확립 방안」에서는 그동안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을 상향(경작면적 3,000㎡, 판매금액 360만원)하는 내용 등이 제시되었다.

②「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구축 방향」에서는 농지 이용증진사업 활성화 및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등이 제안되었다.

③「플라스틱 조화 사용 자제 권고」안건에서는 플라스틱 조화 사용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화훼농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므로 환경 친화적인 화훼 소비 촉진 및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플라스틱 조화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또한「대한민국 축산업 생산성 혁신사례 선정」및「농림해양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등 4건의 안건도 논의되었다.

마지막으로 장태평 위원장은 “현재 농어업·농어촌에는 쌀문제 등을 비롯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5년에는 농어업위가 민·관·학의 각계각층 관계자로 구성된 (가칭)전략대화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붙임) 농어업위 위원장 표창장 수여자 명단

담당 부서	사무국 총괄기획팀	책임자	팀 장	이행은 (02-6260-1211)
		담당자	사무관	한소자 (02-6260-12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농어업위 위원장 표창장 수여자 명단

순서	소속 또는 주소	직급(위)	성명	비고 (발급번호)
1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향미	2024-14
2	소담	대표	이소희	2024-16
3	바이오모아메디칼(주)	대표이사	이동한	2024-17
4	홍동농업협동조합	-	-	2024-18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이철	2024-19
6	청평자연휴양림 ㈜채움숲	총괄이사	남주광	2024-20
7	㈜해풍애	이사	임재근	2024-21
8	㈜세니젠	대표이사	박정웅	2024-23
9	수협중앙회	대리	심기석	2024-24
10	OBS	차장	유성훈	2024-25
11	부산일보	부국장	송현수	2024-26
12	전업농신문	부국장	이태호	2024-27
13	한국수산신문사	부국장	노우탁	2024-28